



새로운 국장, 문장 만들기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공자는 정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다(必也正名乎)"고 하였다. 요즈음 우리 정치에서 명분을 따지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군사독재 시절은 그간 두고라도 국민의 성원 속에 정권을 맡은 집권세력들은 '국민 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라는 각기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름과 실체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통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모두가 가장 기본적인 국시(國是)인 민주주의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 단적인 예를 나는 대통령을 표상하는 문장(紋章)에서 본다. 무궁화 꽃을 가운데 두고 한 쌍의 봉황이 긴 꼬리를 늘리고 있는 모습을 도안화한 이 문장이 민주주의를 헌법으로 택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 놀랍다. 봉황은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서조(瑞鳥)이지만 용과 더불어 제왕(帝王)의 권위를 상징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자각의 이야기도 바로 이 봉황문장에서 비롯된다면 나의 과대망상일까.

미합중국의 화폐 가운데 1달러 자리 지폐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두 개의 문장(紋章)이 실려 있다. 이 2개의 문장에 대한 상징의미를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신화의 힘>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 문장들에는 미국의 건국이념을 둘러싼 이 미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국가 이미지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첫걸음으로 국장과 대통령 문장부터 새롭게 재정하기를 제안한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드높이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천주교의 불교벤치마킹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는 천주교회가 불교계를 '벤치마킹'하여 대변신을 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 중서서울지역 75개 본당을 지도하는 안경렬 원로사제는 6월 27일 워크숍을 갖고, "다른 종교 신도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불교는 환경과 복지,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의 활약이 눈에 띈다"며 "월드컵 기간에 불교계에서 한 '템플스테이'는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장문숙씨

회장 집 사수 과잉충성



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는 ○씨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동명동 회장 집에서 200m 떨어진 골목 입구 주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씨가 집회신고서를 낸 속뜻은 봉은사 인근에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 문제 때문. 봉은사 신도들이 정 회장 집으로 몰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봉은사 신도회는 "법을 악용하여 민원인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처사"라며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어느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의 주 임무는 부대장 심부름이었는데, 하루는 부대장이 애지중지 기르는 강아지 밥을 갖다 주라는 명령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개밥에 얽혀 있는 계란 프라이 때문이었다. 그는 계란 프라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입대 후 그때까지 한 번도 먹지 못했다. 물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민하다 결국 그는 '개밥'을 먹고 말았다. 하지만 민간인이 되고 나니 후회 막심하다고 그는 슬퍼하였다.

최근 어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쥐의 배아에 넣어 인간과 쥐의 유전자 섞인 쥐, 일명 '휴 마우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불현듯 이런 우세가 실화일까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젊은 군인처럼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군인은 후회하고 있는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때문이다. 인간 존엄성은 육망 종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리인 윤리를 지킬 때 비로소 얻어진다.

현재 생명공학의 발전을 두고 일어나는 생명 윤리 논쟁 역시 이와 흡사하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휴 마우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줄기세포에서 각각의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

생명공학은 윤리가 '생명'

장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발달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줄기세포는 치매나 정신병 등 난치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바이오프로 의학의 새 장이 열리는 셈이다.

그렇다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과연 인간과 쥐의 유전자 혼합이 윤리적으로 옳은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 물론 이번에 개발된 '휴 마우스'는 사람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도 반인반수(半人半數)가 아닌 100% 쥐이지만, 유전자가 생명의 책임을 감안할 때, 이로써 이미 이종교배 내지 카메라 탄생의 길이 열리

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인간 종의 고유성은 상실되고,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짓는 종의 경계는 무의미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인간 존엄성은 설 땅이 없어진다.

더군다나 생명공학은 돈의 논리에 따라 발달한다. 즉, 길으로는 질병치료라는 대의명분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돈이 되기 때문에 생명공학은 발달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골뎀 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하지 않는가? 부를 창출해야 하지만, 윤리의 한계 내에서 생명공학이 발달해야

한다. 생명공학자들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세계 식량은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양인 15배가 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다.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분배이다. 돈에 의해 식량이 분배되는 한 결코 기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식량의 양이 아니라 분배의 윤리가 문제이다.

줄기세포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의학은 발달되어야 하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의술이 돈의 논리에 의해 지배될 때 그것은 빛깔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자동차의 생명이 제동장치처럼, 생명공학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공학이 되고자 한다면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 제동장치는 다른 생명윤리가 아닌가? 생명공학의 발달이 아니라 생명공학 기술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생명윤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명공학 역시 무기화될 수 있다. 상업주의가 생명공학을 지배할 때 생명윤리는 들어설 땅이 없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우란분절을 앞두고

'新기복주의'로 인식되지 않기를...

매년 음력 7월 보름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山居)를 마치고 나가지 않고 수행하는 기간을 끝내는 해제일입니다.

세속에서는 백중(百中)이라 하는 날인데,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나 우란분재라 하여 특별히 조상을 천도하는 행사가 불행합니다. 불가(佛家) 5대 명절 중 하나로 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 유래는 <목련경>과 <우란분절>에 자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 제일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악도(惡道)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방편'력으로 악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방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7월 보름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는 공덕입니다.

'대중공양'이란 음식과 의복, 약 등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을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시공덕으로 조상이 천도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절에서는 백중 날 대중공양을 받는 대신 '조상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조상에 대한 천도방법은 꼭 '우란분절' 식만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장경>은 경 자체가 '천도와 공덕'에 관한 내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광명전언으로 죽은 이를 천도



49재 우란분절에 마치도록 해 신도들 혼란, 계율 어기는 심각한 문제

할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승의 기우는 이런 연유가 분명한 우란분절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의 '방편'으로 화제가 아니라 불교의 '신기복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불시 부처님께 절도 안 하는 '선방'이 있는 본사급 사찰이나, 스님들이 경건공부를 하는 '승가대학'이 있는 절에서 앞장서 큰 행사로 '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복주의'의 사례란 다음이 아니라 우란분절에 하루 지내면 천도제를 이하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마다 7-7재를 지내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막제를 우란분절에 마치도록 하는 절묘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필 왜 우란분절에 하여 신도를 혼란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만 분별 있게 생각해 봐도 '계율'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불교는 승단과 신도 모두 너무나도 발달된 '방편불교'에서 벗어나 '경전불교'로 돌아가는 길이 급하고도 험한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내를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동참금'과는 무관하길 부처님 전에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절 신도들이 "우리는 왜 안 합니까?"라고 물어 왔을 때, 복장 타지는 스님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 올해 백중은 양력 8월12일이니 49일에 맞추려면 7월1일에 입재해야겠습니다.

성평 스님/ '세존' (www.sejon.or.kr) 사이트 운영자

故 사회복지사 이명숙선생 추모

6월 그 하루 무덤엔 날, 소중한 한 사람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들꽃처럼 작고 연약했으니, 그 향기는 참으로 오래 많은 사람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간 사람, 우리와 함께 오래도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더 아리게 하는 사람, 뜨겁던 일의 열정, 자존심, 이제 한층의 재로 식었으나, 그 인연은 쉽게 지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노인요양원들은 이제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자리 함께 해야 할 사람, 야단쳐도 뿌리치고 갔습니다. 이 생애에서 못다 한 사회복지사의 꿈, 저 세상에 서라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거기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 꼭 도와주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직책

그의 고통 밑거름 삼아

웁음으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참으로 인생하기만 했던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있고, 크고 똑같고 찬 마음으로 훨훨 우주의 시공을 날기 바랍니다.

차마 보내기 힘든 영혼에게 다짐합니다. 그의 회생 헛되지 않게, 그의 아픔, 그의 고통으로 밑거름 삼아 헛된 것들, 사악한 것들 우리 곁에 범접 못하게, 빛으로, 웁음으로 일하기를 진정으로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외롭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많은 자선, 더 많은 사랑 베풀기로 약속합니다.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정지현 합장

*지난 2000년부터 진각복지재단 시설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이명숙 사회복지사는 올 5월 봉축행사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 위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6월 21일 31살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만우스님 수행 45일만에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이루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을 신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서 포교원 <구룡사 052)298-9945, 017-521-

-9952>을 운영하시는 만우스님(영통수련반 2기생)은 지난 2002년 10월말 경, 저희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파동명상수련을 하시던 45일째 되던 날 새벽, 스님의 인당혈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심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 스님은 영통(靈通)이 열려 구룡사를 찾는 많은 신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도하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만우스님은 평소애 방편으로

천문과 지리, 육임과 명리학 등에 관계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공부들은 스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항상 답답해 하시다가 본 연구소의 영통수련반에 입문하시어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다. 현재 숙명통을 이룬 스님의 소문을 듣고 구룡사로 밀려드는 많은 신도들(하루에 4-50명)의 일상사에 대한 친견 때문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지 불과 6개월만에 신도수가 2000명으로 불어나 지금은 모처에 큰 불사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근간에 전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파동명상수업의 :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通을 열 수 있게 한다. (숙명통..)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피)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